

INU 국립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미추홀캠퍼스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송도동)

제물포캠퍼스 [22100]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165 (도화동)

2018

인천大를 빛낸,
인천대 학생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U 국립 인천대학교

인사말



올 해 개교 40주년을 맞는 국립 인천대학교는 사립대학에서 시립대학으로, 그리고 국립대학으로 전환된 국내 유일한 대학입니다. 또한, ‘시간에서 미래, 공간에서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어떤 대학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립 인천대학교가 겪고 있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발전은 인천대 구성원. 특히 학생 여러분이 힘써 노력한 결과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꿈과 열정을 노력으로 증명해준 학생들이 이루어낸 감동 스토리를 작은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대내외로 국립 인천대학교를 빛낸 여러분의 결실이 후배들에게도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학생들이 추구하는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강의실, 도서관, 연구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열심히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학생 여러분,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조 동 성

CONTENTS

2018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학생

문화가 있는 인천대

- 06 시민의 눈에 인천대의
안전감수성을 덧입히다
주종환·한승연·박종윤
- 09 ‘INU 생산관리 연구회’의
소중한 도전의 시간
김도영·고승욱·김영찬·이요한
- 11 열린 세계로의 성장,
두 번의 국제회의를
통해 이루다
권순욱·최종석
- 14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
토막임, 남과 북을 잇다
장현정

희망이 있는 인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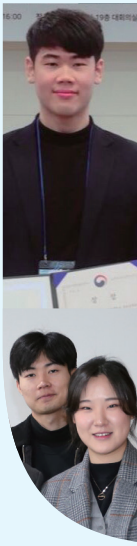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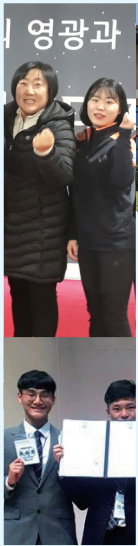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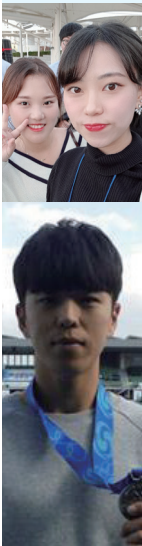
- 16 인천대 학우의 자전거는
용기와 희망을 싣고
세계를 달린다
이호준
- 19 땀과 노력으로 이룬
행정고시 합격,
인천대 학우가 해내다
오성택
- 23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
그 안에 사람이 있다
김서경·백지원·최유정
- 26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꿈,
빛나는 메달들을 목에 걸다
김현준

미래가 있는 인천대

- 29 친환경 에너지로 뭉친 우리들,
커져가는 열매들
조승연·조영철·정현권
김요한·노종혁
- 31 ‘순간포착’으로 빛을 발하다
임지혜·김은서·석희연
신유진·정수림·이수아
- 32 나만의 포트폴리오,
대상 수상의 지름길!
이솔비
- 34 따뜻함을 잇는
‘온(溫)커넥터’,
지속가능한 삶도 이어지다
문정민



INCHEON NATIONAL UNIVERSITY





66 시민의 눈에 인천대의 안전감수성을 덧입히다

주종환·한승연·박종윤

제1회 전국 대형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대상)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 장관상 수상으로!

대형복합재난 시나리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재난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계되어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예상해보며 미리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교육 훈련 시 활용되며, 재난예측 피해 연구개발 주제로 선정된다. 지진 및 대형 화재사고들의 잦은 발생으로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고조되었으며 정부는 재난 예방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제1회 대형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다양한 소재를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

2018년 1월 26일, 우리 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제1회 대형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에 참가하여 'Off Day'라는 작품으로 학생부분 대상인 장관상을 수상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공모전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116편의 작품이 선정되었

다. 2차 발표 심사는 종로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진행되었고, 우리 팀은 약 15분 정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공모전 결과 발표 후 준비 없이 인터뷰가 들어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피해자들이 줄어드기를 희망
하며, 안전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에 처한 시민의 눈높이가 담긴 시나리오

우리 팀은 '반드시 올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금잔화를 모티브 삼아 '금잔화'라는 팀명을 지었다. 안전공학도로서 평소 생활안전에 관심이 많았고, 시민들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참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도시의 전력망과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혼란의 연속인 이야기에 가족이라는 매개체를 담았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에 다각도의 시선에서 여러 가지 피해의 양상을 담아내고자 했다. 또한 재난에 직면했을 때의 시민들의 불안정한 행동들을 현실적으로 묘사하여 올바른 안전교육과 안전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법적인 물건 적치로 인해 비상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대피에 혼란을 주는 상황이나, 패닉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들, 적합한 안전교육을 이수 받지 못한 아르바이

트생 등을 시나리오의 소재로 삼았다. 직접 지하철을 견학하며 담당자의 허가로 예비전력시스템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했고, 뉴스기사들을 참조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고보다는 현실성 높은 사고에 집중하여 시나리오에 공학적인 부분을 접목시켰다. 2차 발표심사 때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동시에, 발표를 듣는 사람이 시나리오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구성했다. 국내 규모의 공모전에는 첫 도전인 만큼, 자유로운 토론형식인 브레인스토밍과 팀원 각자의 역량이 좋은 시너지를 내어 장관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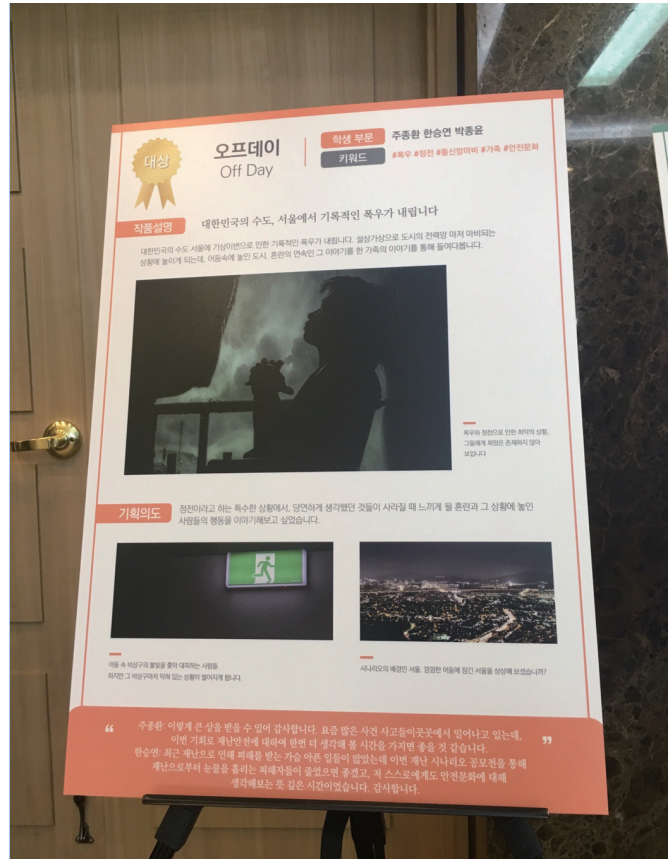


공모전을 발판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2018년 1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모전 결과 발표 및 수상이 이루어졌다. 우리 팀은 직접 선정한 시나리오 이미지 등이 소개된 것을 보고 큰 성취감을 느꼈다. 전문가 부분의 발표가 먼저 진행되었고, ‘어는 비’를 소재로 한 ‘아이스 스톰’이란 작품으로 영화감독이 대상을 수상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쟁쟁한 후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공모전 행사관련 인터뷰에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예측하기 힘든 재난에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행사 당일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고현장에 방문하는 일정으로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팀원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 행사 시간에서까지 사고가 난 것에 안타까웠고, ‘대형복합재난 시나리오’와 같은 공모전이 앞으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될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절감했다.

우리는 공모전에 참여하며 안전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정부와 국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 재난으로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안전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깊이 바라게 되었다. 공모전 수상의 경험을 발판으로 팀원들도 각자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사회에 나가 안전 분야에 종사하며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본다.



구슬땀 흘린 연구들, 최우수상이라는 귀한 열매로

우리 팀은 공모전의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다소 고생을 했다. 팀원 모두가 ‘생산운영관리’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서로 다른 분야로 취업을 고민했던 만큼 생산관리 분야의 경향과 이슈들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아직 어떠한 주제가 흥미로운지 분별하거나 해당 주제를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만큼의 경험과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경영학부 김창희 교수님의 ‘INU 생산관리 연구회’ 첫 미팅 이후, 팀원들은 각자 공부를 하며 생산관리 분야의 이슈들을 정리했고, 한 주에 여러 차례씩 모여 서로의 주제를 논했다. 하지만 수시간을 통해 정해진 첫 주제는 교수님께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음에도,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가 부족하여 결국 보류하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논의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물류비의 주원인인 비영업용 도로부문에서의 인건비를 AHP 및 선형계획기법들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후 팀원들은 교수님의 조언 끝에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우체국 Hub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를

정하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순탄할 것 같았던 연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코앞까지 다가온 공모전 기일은 크나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팀원들은 그때 내심 연구회 활동을 후회하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었다고도 한다. 휴일이었던 어느 날, 팀원들은 작정을 하고 24시간 카페에서 미팅을 가졌다. ‘밤을 새서라도 오늘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한 연구는 나름의 형태를 잡아가는 듯 했으나,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온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선형계획기법들을 적용하지 못 했고, AHP만을 이용하여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다. 그렇게 공모전 당일이 되었고, 교수님의 지도와 충분한 연습 덕분에 큰 실수 없이 발표를 마친 우리 팀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물류네트워크 제시’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짧은 듯 긴 시간이었지만 학회 준비과정에서의 고생과 첫 활동에서의 수상은 팀원들 모두에게 많은 의미를 주었고,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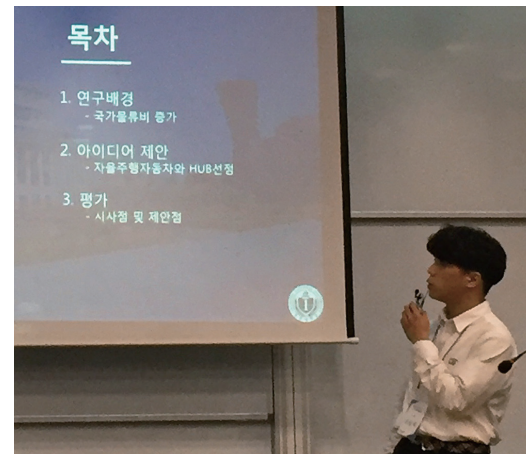
모두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연구회 활동이 꾸준한 학문 길의 버팀목이 되다

‘INU 생산관리 연구회’가 발족될 당시 나는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관심이 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탐탁지 못했기에 어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갑작스런 연구회 참여 권유를 받았을 때에도 ‘취업준비에 연구회 활동이 도움이 되는가?’, ‘기회비용은 어느 정도인가?’를 수차례 저울질 했다. 하지만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스펙을 하나 더 만들자는 다소 패심한 마음으로 김창희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그런데 ‘INU 생산관리 연구회’ 일원이 되어 ‘2018 현대자동차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에 참여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연구에 심취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첫 학술대회가 마무리 된 이후 직감적으로 진로를 결정한 나는 곧장 교수님께 개인면담을 신청하였고, 학·석사연계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국생산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시즌이 다가오자 교수님께서 내게 ‘INU 생산관리 연구회’ 팀원들과 별도로 석·박사 세션에 참여할 것을 권하셨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 다소 고됐지만 정말 즐겁게 연구와 발표준비를 하였고, 그 결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효율성 측정 연구: 도매 및 소매 비중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우수상까지 수상하였다. 어느 때와 같이 골머리를 썩이며 도서관에 있던 중에 동생의 전화 한 통으로 우연히 만난 ‘INU 생산관리 연구회’. 연구회가 진로를 고민하던 나를 석·박사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내 인생을 바꿔놓을지는 상상도 못 했다. 학·석사연계과정에 더하여 박사과정까지 결심한 현재, 이 우연에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초심을 지켜 청출어람 하고자 한다.

아낌없이 지지해주신 김창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INU 생산관리 연구회’의 결과는 모두 김창희 교수님의 헌신 덕분이었다. 교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쾌하고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셨고, 현실적인 조언과 피드백으로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셨다. 회의 장소를 찾아 전전하는 우리를 보시고는 일부러 개인 시간과 연구실까지 내주시며 우리의 연구 활동이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보통은 무시할만한 우리의 별 볼일 없는 농담부터 고민들까지 진심으로 마주해주셨다. 심지어 연구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까지 해주셨다. 교수님 덕분에 우리는 학회를 준비하는 내내 아무런 걱정이 없었고, 미팅이 있는 날들이 기다려졌었다. 매번 감사하다고, 한편으로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이 글을 빌어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김창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열린 세계로의 성장, 두 번의 국제 회의를 통해 이룬다

권순욱·최종석

제24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대상



인천대 정치학도들, 국제기구 모의회의 에 도전하여 빛나는 성과를!

정치학을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던 중, 국제관계와 비교정치를 배우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전쟁, 분쟁, 내전, 테러 등의 정치 불안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제24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유엔한국협회 주최, 7.4~7.7)의 의제 중 하나인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대회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후 ‘제24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정치 불안정과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 ‘2018 모의 아프리카연합 총회’(한아프리카재단 주최, 11.16~17)에도 지원하게 되었다. 두 대회 모두 1,2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한 국가의 대표를 맡아 일정한 의사진행규칙을 따라 국제사회의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모의 국제기구 회의였다. 우리는 ‘제24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제3위원회에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란 주제로 영국 대표를 맡아 대상(외교부장관상)을 받았으며, ‘2018 모의 아프리카

연합 총회’에서 ‘아프리카 평화안보유지에 있어 여성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코트디부아르 대표를 맡아 우수상(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상)을 수상하였다.

힘겨웠던 모의회의 준비과정들

그러나 국제기구의 모의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둘 다 처음 겪는 모의회의이자 대외활동이기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 주변의 경험담을 들어보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썼다. 게다가 유엔회의의 의사규칙에 대해서도, 입장문이나 결의안 초안 등에 대한 작성법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엄청난 자료 수집이었다. ‘제24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는 3,4개의 위원회로 나뉘어 각 위원회마다 하나의 의제를 다루었다. 우리가 지원한 제3위원회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Prevention of Violent Extremism)’이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의제는 ISIS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등장하던 2014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와 깊이는 상당하였다. 또한 영국 대표로서 영국이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해 어떤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과 접목시킬 수 있는 시민사회, 기업, 지역공동체, 국제사회 등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했다. 마찬가지로 모의 아프리카연합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웠다. 2000년에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호에서 강조된 ‘여성, 평화,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의제도 상당히 어렵고 포괄적인 주제였다. 이 의제는 평화안보 유지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역량을 늘리고, 성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게다가 우리가 대표하게 된 코트디부아르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의 내전을 왜 겪었는지, 이러한 정치 불안정 속에서 여성들이 마주한 문제들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2007년에 ‘여성 평화 안보’ 의제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 산하의 한·아프리카 재단이 주선하여 10월 26일에 실베스트르 쿠아씨 빌레(Sylvestre Kouassi Bile)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과 면담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 면담을 바탕으로 많은 자료들을 읽어야 했다.

당사국의 시각으로 바라본 국제문제, 수상이라는 큰 성과로

2018년 7월 4일인 ‘제24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 첫날은 각국 대표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날이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의유엔회의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대회였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발표에서도 알 수 있었다.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부족했던 자료들을 찾아

밤을 새며 공부해야 했다. 5일부터 7일은 본격적으로 결의안 작성과 채택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녔다. 다른 국가 대표들과 만나 협상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도 영국의 입장을 관철해야 했다.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 실업자의 사회적 포용성에 관한 논의를 부각하기 위해 이란, 인도, 예멘, 네덜란드, 코트디부아르,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들이 힘을 합쳤다. 그리고 밤 10시에 공식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다음 날의 발언을 위해 상세하게 보충해야 할 자료를 열심히 찾았다. 우리는 많은 내용을 준비하고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합의점을 형성해내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다른 대표단이 매끄럽게 회의를 주도하며 공식문건 작성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게 잘한다고 느꼈다. 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을 할 때 대상 수상자를 호명하기 전까지 우리 이름이 들리지 않았던 것에 낙담했던 이유였다. 마지막 순서에서 우리 이름이 들리자 매우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제3위원회의 참가자들을 평가하신 한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시면서, 상당히 최근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룰 수 있었던 점을 높게 샀다고 말씀하셨다. 모의 아프리카연합 총회에서도 우리가 상을 받으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3:1의 경쟁률을 뚫고 모인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고 의제에 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았다. 같은 의제를 놓고 협력했던 잠비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탓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더욱 심도 있게 의제를 이해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제 자체의 큰 틀을 정리하고 회의의 진행을 주도하는 쪽에 집중하였다. ‘여성, 평화, 안보’ 의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를 코트디부아르의 입장에서 설명하려 하였다. 다른 참가자들의 수준도 높았기에 아쉽게 우수상에 그쳤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의 이한규 교수님이 당선께서 알지 못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즐거웠으며 칭찬해주신 것에 만족스러웠다.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유엔본부를 직접 방문하다!

‘제24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의 각 위원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람들에게는 외교부의 후원을 받아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018년 11월 26일 아침에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정도 후에 뉴욕에 도착하였다. 첫날에 우리는 유엔본부의 건물을 둘러보면서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총회 회의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다. 유엔이라는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를 실제로 방문할 수 있었다는 데에 매우 놀라웠다. 두 번째 날에 우리는 조태열 유엔한국 대표부 대사와 면담하였다. 마침 북한과의 통일을 다루는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연구원들과도 동석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외교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유엔에서 실제로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세 번째 날은 유엔의 예산편성을 다루는 제5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각국 대표들의 발언을 경청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유엔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방식, 각국 대표들의 발언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

노력이 새겨준 자산들, 인천대 학우들도 함께 나누기를

두 번의 국제기구 모의회의의 참가는 열심히 공부하며 상을 탄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기술, 영어로 읽고 쓰는 능력 등을 숙달한 것은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주요 현안을 알고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한 덕분에 세계를 보는 시각이 한 층 넓어지고 앞으로의 미래 또한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대학교에서 많은 학우들이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 지원하였지만, 수상을 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과와 값진 경험을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인천대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국제기구 모의회의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



서로에게 따뜻한 용기가 되어줄 ‘토닥토닥’

매년 통일부에서는 남, 북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통준PT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이 대회는 전국의 모든 남, 북 대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예선전부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도 ‘제8회 남북 대학생 통준PT 경진대회’가 개최되었고,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여율빈, 장현정, 중국어통상학과 김지형, 인하공업전문대학 이영성 4명이 한 팀이 되어 4월부터 최종 발표인 7월까지의 여정을 함께 하게 되었다. 경진대회의 첫 시작은 팀명을 짓는 것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 실제로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일들로 채워진다. 우리 팀은 ‘토닥토닥’이라는 팀명을 만들었다. ‘토닥토닥’으로 팀명을 지은 이유는 서로에 대한 편견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남, 북 대학생들을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음에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는다고 느꼈다. 우리의 팀명에는 그렇게 상처받은 친구들에게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조금은 달라도 괜찮아.” 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

네며 앞으로 상처를 덜 주고받기 위해 해야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우리의 답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스스로 상처받은 경험과 감정들을 돌아보며, 팀원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어 주고 싶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걷는다면, 남과 북도
훨씬 가까워져 있을거라 믿어요.

소통, 모든 것의 중심!

우리는 팀원끼리 했던 프로그램인 TMI-TIME, 카드 놀이, 활동 정리 이 세 가지를 자체 제작하여 활용했다. 이를 계기로 소통은 서로가 함께 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대학과 동아리를 포함하여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공급함으로써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는 남, 북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남, 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적당한 마음의 글들을 소통카드로 표현하여 남, 북 대학생들이 소통을 하는데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외부로부터 우리 팀이 자체 제작한 소통카드를 실제로 사용하고 싶다는 제안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었다.





인천대 학우의 자전거는 용기와 희망을 싣고 세계를 달린다

이호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며
미국 자전거 횡단



미국 5개 대도시로 전달된 할머니들의 목소리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는 한국과 일본간의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은 세계 여성 인권 운동으로 다뤄질 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미디어의 중심지이자 한, 일 양국을 떠난 제3국이기엔 좀 더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 느껴졌다. 미국을 목적으로 결정한 후, 주저없이 비행기표를 끊었다.

미국 횡단 기간을 80일 정도로 잡고 중간중간 기획해볼 콘텐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우선 능숙한 영어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설명하는 가상의 대화를 미리 번역하여 말 그대로 달달 외웠다. 또한 매일의 여정 동안 만나게 되는 시민들에게 홍보할 리플렛과 플래그를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크고 작은 현지 언론과도 꾸준히 연결을 시도하여 다수의 인터뷰가 현지 방송에 방영되기도 했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을 제작, 공개하여 SNS 상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 기획했던 부분은 '수요집회'다. 1992년부터 종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집회 형식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진행해보고자 했다. LA, 시카고,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까지 총 5개의 대도시를 선으로 잇고 그 지역의 일본 영사관,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나의 목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달하는 것이었기에 28년째 같은 자리에서 외치고 계신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포기하지 않았던 힘, 시민들의 응원과 동행!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끊임없이 찾아왔다. 40도가 넘는 애리조나 지역을 지날 때도, 끝없이 이어진 오르막

을 한숨으로 맞이했던 산맥에서도, 그리고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지나가던 하루에도. 금방이라도 멈추고 싶었지만 힘들어도 계속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기획안과 열정만 보고 후원 해주신 수많은 시민들. 그들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났고 모든 이들과 함께했기에 해낼 수 있었다. 지난 3개월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행동으로 옮겨 보고자 했던 모든 이들과의 동행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들을 향한 연대의 마음,
남아 계신 할머니들과 함께
동행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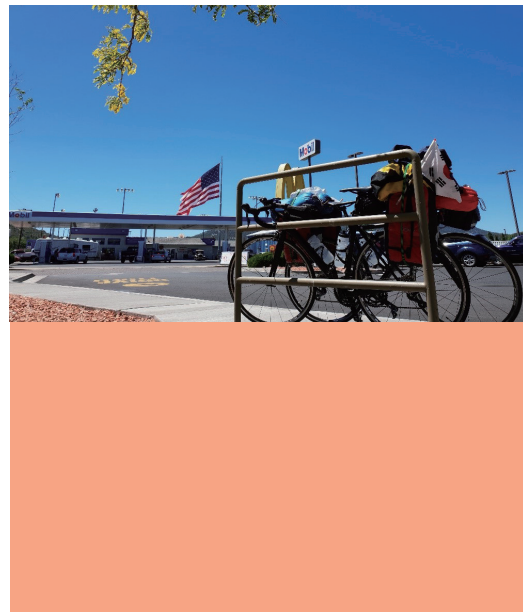
어려운 순간에 힘을 실어준 인천대학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후원을 받고, 자전거 용품 관계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용을 충당하기엔 대학생이 감당하기 버거운 만큼의 비용이 발생했고, 대륙을 횡단하기에도 금전적으로 턱없이 열악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때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와 '학생지원과'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내 주었다. 간절한 마음에 기획안과 이후의 성과를 약속하며 찾아봐었지만, 출국이 임박해져서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총동문회'와 '학생지원과' 관계자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다. 특히 학생지원과 이재학 교직원 선생님께선 지원 절차와 방법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까지 보내주시며 힘을 실어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끝나지 않을 도전, 모두 함께 동행합시다

6000km 거리거리마다 남은 소중한 기억들은 여전히 내게 꿈처럼 남아있다. 세 달 간의 뜨거웠던 기억 속, 가장 선명히 남은 부분은 ‘도전’인 듯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짧은 고민 하나가 나를 움직였다. 도전했고 그 범위만큼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나의 도전이 역사를 움직이는 대단한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남아 계신 23분의 할머니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선 안된다고, 함께 동행하자고 말이다.



땀과 노력으로 이룬 행정고시 합격, 인천대 학우가 해내다

오성택

행정고시
(5급 공채 행정(국제통상)직) 합격

행정고시 합격의 밑거름, 선예원 생활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사무관(5급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처음 시작된다는 말도 있듯이, 행정고시(5급 공채)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에서 행정고시에 도전하는 인구가 서울의 여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적다고 느껴져 아쉬운 마음이 크다. 이는 아마도 먼저 합격한 사람들과 후에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적은 탓이 아닐까 한다. 나의 글이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올해 국제통상직렬에 직렬최연소로 합격한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저학년(2학년 1학기) 때부터 선예원에 입반하여 조금씩 꾸준히 공부해온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선예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유의미한 혜택은 ‘학습을 위한 개인 공간 제공’이다. 도서관 열람실 등과는 달리, 선예원은 ‘개인 선반’이 딸린 ‘개인 지정석’을 제공해서 학습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나는 생활공간과 공부공간을 명확히 구별시켜야지만 학습능률이 나오는 타입이라,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게 보장된’ 공간이 주어진다

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최단경로로 공부장소와 생활 장소 사이에서 왕복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도 그러했다. 물론 고시촌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공부의 집약도가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학기를 다니면서 고시공부를 병행하기에는 선예원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다. 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이라면, 선예원 입반을 고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뜻깊은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해냈으니
학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답노트를 활용하며 1차 시험을 준비하다

2016년 2학기에 법과대학에서 김영진 교수님의 헌법 수업을 들었다. 학교 수업을 통해 한 학기에 걸쳐 헌법이라는 과목을 충분히 음미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들인 결과, 이후의 헌법 공부에 있어 훌륭한 기초공사가 되었다. 이후에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1차 시험을 준비했다. 초시(2017년) 때도, 재시(2018년) 때도 이렇게 헌법을 준비한 결과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2016년 2학기에 학교 고시반(선예원)에서 머물며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반원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해 공부했다. 스터디원은 나와 전공이 달랐는데, 그러다보니 같은 문제를 두고서도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접근하는 관점이 달라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 선예원에서 PSAT에 대한 감각을 처음 키운 뒤, 2017년 1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위해 신림동 고시촌으로 거처를 옮겼다. 스스로 PSAT형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라, PSAT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관해서는 꽤 고민을 했다. 그 결과 다다른 결론은, ‘오답노트를 철저히 쓰자’는 것이었다. 틀리거나 애매하게 찍어서 맞춘 문제를 두고, 해당 문제의 유형과 해당 문제를 틀린 원인을 유형화하여 기록하고, 40문제를 10문제씩 4개 구간으로 분류해 어느 구간에서 주로 많이 틀리는지를 분석했다. 나아가, 틀린 문제들에 대해 ‘내가 고른 답과 그 이유’, ‘정답과 내가 그걸 고르지 못한 이유’, ‘이 문제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다음번에 이러한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탐구했고, 그 탐구의 결과들을 전부 오답노트 공책에 기재했으며, 두고두고 다시 꺼내볼 만한 사항은 색깔 펜 등으로 따로 표시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번 회차에 내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느꼈고, 이번에 느낀 것이 다음번에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떻게 반영되기를 희망하는지 등도 전부 글로 적었다.

단권화와 반복, 2차 시험 합격의 열쇠가 되다

고시공부의 꽃인 2차 시험이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는 ‘범위의 방대함’에 있다고 본다. 각 2차 과목의 시험 수준은 각 과목의 학부 3~4학년 수준에 해당하며, 따라서 2차 시험은 결국 ‘시험범위가 넓은 기말고사’라고 볼 수 있다. 즉, 고시공부는 내용의 난이도 그 자체보다는 시험범위가 넓은 까닭에 어려운 것이다. 결국 고시공부의 핵심은, ‘밀 빠진 독의 수위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 본다. 경제학류 과목과는 달리, 법학류 과목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답안을 전혀 쓸 수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법학류 과목에 대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이었다. 거의 전 범위를 ‘자기최고답안’ 형태로 압축한 뒤, 그것을 계속해서 회독하면서 답안감각을 익혔다.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1년 내내 만성적인 손목통증으로 고생했고, 그 영향으로 행정법과 국제법의 경우 100점 분량 답안을 시간 재고 작성한 것은 시험일 당일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었다. 이러한 절대적인 연습량 부족 때문인지, 행정법·국제법 과목의 성적은 스스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저조했다. 그래도 누적적 리마인드 전략을 통해 꾸준히 답안감각을 익힌 덕분에, 100점짜리 답안작성연습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음에도 행정법과 국제법 모두 실전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10페이지를 꽉꽉 채워 써낼 수 있었다. 또한 행정법의 경우 심지어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퇴고작업도 거칠 수 있었다. 법학류 과목에서 합격생 중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고, 이는 커트라인에서 6점 이상 차이 나는 점수로 최종합격하게 해주는 탄탄한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국제경제학은 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배웠던 과목이기도 하고, 수강하는 인구가 많은 덕분에 참고자료가 많은 과목이다. 국제경제학은 나름대로 단권화 작업을 해두었다. 이 단권화된 책에는 자주 저지르는 실수나, 답안에 작성하면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색깔 펜으로 정리해두었다.

올해 합격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국제경제학이 80점대 초반에 달할 정도로 흐름을 쳤다는 점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즉, 남들이 다 못 쓸 만한 건 가급적 멸망하도록 짧은 시간 내에 방어해두고, 남들이 다 쓰는 걸 남들보다 잘 쓰기 위해 조금 더 투자하는 시간배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학류 과목은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일찍부터 꾸준히 기본기를 쌓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어는 미드·일드나 영자신문·일자신문, 어학류 과목 2차 모의고사집에서 나온 모르는 단어들을 위주로 했다. 이 단어들을 선예원에서 학생식당으로 오고가는 시간 및 식사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살려 단어장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외웠다. 어학류 과목은 꾸준함이 생명이라는 점을 다시금 느꼈다.



세 번의 관문을 통과했던 3차 시험

5급 공채의 면접시험은 ‘집단토의(GD)’, ‘개인발표(PT)’, ‘인성면접’이라는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3차 시험에 임하는 전략에는 크게 ‘우수를 노리는 전략’과 ‘보통을 노리는 전략’이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전자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3차 시험에서 ‘우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면접관님들의 눈에 띄어야 하며, 눈에 띄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발언 횟수 측면에서든, 발언 내용 측면에서든 많이 나설 것이 요구된다.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난함을 포기하는 전략이니만큼 까딱 잘못하면 ‘미흡’을 받을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의 2차 성적을 믿고, ‘나는 면접에서 미흡만 받지 않으면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했다. 면접스터디에는 이전년도에 최종 합격한 선배가 함께 공부했던 당해 연도 2차 합격생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주는 등 유대가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집단토의는 면접학원 자료를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해서 모의고사를 풀듯이 준비했다. 토론 자체는 무난하게 진행되었고, 면접관님들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셨다.

PT 및 상황면접에서는 PT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3차 시험의 꽃이자 가장 고난이도인 작업이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연습량은 채우는 것이 필요해보였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보고서를 돌려보면서, 자기 보고서의 개선방향을 찾아나가는 연구도 필요했다. 나는 PT 보고서보다 상황면접 기술서를 먼저 5분 이내로 어떻게든 끝낸 뒤, 남은 25분 동안 보고서를 쓰는 방식으로 연습했다.

인성면접 준비는 ①자신의 경험(예컨대, 동아리 경험, 자원봉사경험 등으로 적어도 3가지 안팎)에 관해 정리해두고, ②공직지원 동기나 지망부처, 존경하는 인물, 좌우명 등 자잘한 예상문제들에 관한 대답을 준비해두는 방식으로 준비했다. 인성/상황면접에서 평소에 준비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나오지 않았다. 인성면접에서 스스로 특별히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면

접관님들과 여유로운 표정으로 눈을 마주치려고 신경 썼고, 무난하게 잘 대처했던 것 같다. 딜레마 유형의 문제에서는 ‘어떤 가치와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마지노선까지 어떤 가치를 지지할 것인가?’를 묻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어렵지만 뜻깊은 고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험생활을 거치며 스스로 느낀 바로는, ‘고시’란 말이 ‘高시’, ‘考시’, ‘苦시’ 등 여러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고시는 ‘高시’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중요한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짊어질 사람을 뽑는 시험이다. 때문에 고시는 ‘考시’이기도 하다. 주어진 업무를 기계적으로 외워서 처리하는 암기머신이 아닌, 논리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다. 그러다 보니 고시는 ‘苦시’이기도 하다. 신경 써야 할 게 많아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뜻깊은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험은 매우 가치 있는 시험이다. 그러한 가치를 쟁취하기 위해 다소간의 희생이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다른 학우들보다 특출하거나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단지 나 또한 다른 합격생들처럼 이 시험에 불기 위해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희생을 치러왔고, 그러한 희생이 운 좋게도 합격으로 이어진 것일 따름이다. 내가 할 수 있었으니 이 글을 읽는 학우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 고시에 많이 도전해주길 바란다.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학교에 있을 것 같으니,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취업경력개발원을 통해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다. 힘닿는 대로 도와주고 싶다. 건승을 빕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건축, 그 안에 사람이 있다

김서경·백지원·최유정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작품부문 동상

소통이 흐르는 건축, 우리가 만든다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에서 주관한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작품부문 공모는 ‘INTERGRATION-천년의 도시’로 개최되었다. 우리 팀은 전국규모로 총 270팀 중에서 본선 10팀 안에 들게 되어 최종적으로 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작품명인 ‘log 人’은 골목길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뜻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했지만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증진시켰던 골목길을 되살려 프로젝트에 도입시킨 것이다. 장소로 선정된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74-15 일대는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무분별하게 주택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정돈된 길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좁은 골목길이 다양한 폭과 길이로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이 일대는 앞서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기록이 있으며, 전체적인 주거의 노후화도는 약 75%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았다. 장소 주변은 아파트와 6층의 빌라인 반면, 장소 내의 건물들은 80%이상이 2층 이하의 건물로, 저층 저밀도의 주거현황을 볼 수 있었다.

우리 팀은 그 밖의 사회적 이슈를 검토했다. 먼저, 현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을 깊게 생각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도에 비해 2015년도 1인 가구의 비율은 9%에서 27%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30%로 증가 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개인의 생활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개인 중심의 생활이 발달함에 따라 현대 사회는 소외와 단절을 경험하며, 커뮤니티가 단절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단절된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개인의 공간이 보호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는 대학 자원의 최다 보유 지역으로, 학생들의 유입으로 인한 1인 가구 수요와 고령화로 발생하는 1인 가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난개발로 인해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의 갈등 심화, 범죄율 증가,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공간은 열고, 커뮤니티는 채우고!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콘셉트와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과거의 길과 현재의 길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과거의 길은 건물의 형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좁고 정돈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사회의 길은 잘 정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폭에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여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증진시킨다. 17,000m² 가량의 공간에 매스를 계획하는데 있어 우리가 우선시 한 것은 프로그램 간의 비율과 밀도, 조닝, 배치 등의 종합 계획이었다.

우선 주거와 공용 공간 등의 프로그램에 비율을 정하고 이를 밀도 있게 조합한 후, 그룹화를 통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그 후 길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배치하고 방향과 전면성 등의 주거시설에 기본 사항들을 고려하여 매스를 형성하였다. 우리의 생각은 생활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인이 필요로 하는 주거모듈 역시 선택 가능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1,2 인의 소형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모듈 평면을 제시했다. 모듈은 기존의 소형주거 모듈을 베이스로 하여 개인의 생활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을 뺀, 부엌과 거실이 없는 모듈을 제시하고 부엌과 거실이 없어짐으로 인해 주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모듈을 제시했다. 또 이렇게 제되된 기능은 공용공간을 통해 보완하고 공유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민간의 커뮤니티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또한 각 타입의 주거 유형을 타입끼리 결합하여 생활패턴이 유사한 사람들 간에 생활을 서로 공유 할 수 있게 했다. 클러스터들은 중앙가로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중앙가로부터 각 클러스터로 진입이 가능하다. 지상에서는 각 모듈간의 조합 속에서 공유공간이 사이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하공간에서는 차단된 클러스터들을 연결하는 공용공간을 만들어 마을 전체의 커뮤니티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27m 가량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각 평면은 3m 단위의 등고에 맞추어 구획되었다. 주거 평면은 전체적으로 편복도형으로 계획했으며 각 주거



모듈 사이에는 소규모 공용공간이 배치되었다. 또한 지하공간에서는 마을 전체의 공용공간이 배치되어 있어 각 분리된 클러스터들을 지하에서 연결시켜주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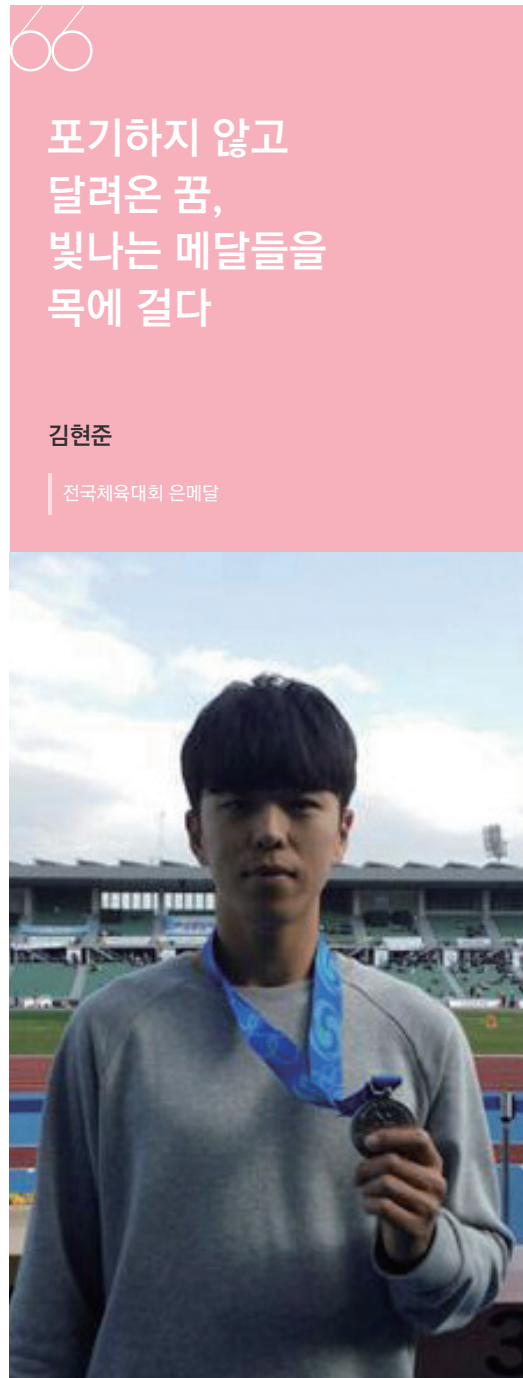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건축물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 해제 구역에 따른 사이트에 대응하도록 도시를 재생하고 보존하고자 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기본 골조와 외피 재료(벽돌)를 재생 하는 모듈을 제시하고, 담장의 경우 조적식 구조에 따른 담장 기능 및 벽체의 역할을 보존하도록 사이트 내에 배치했다. 도시의 재생과 보존의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지속가능성 또한 추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듈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공급이 부족할 때 야외테라스 등의 일부공간을 이용하여 증축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인구수의 감소로 수요가 감소할 때 일부 벽을 헐어 외부 공간, 공용 공간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함께’라는 이름으로, 더욱 뜻깊었던 수상

‘천년의 도시’라는 막연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팀은 다양한 사례 분석과 현장분석을 기반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아이디어 제시를 위해서도 회의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도시재생 구축 방안, 주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분석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피드백 함으로써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디자인 도출과정이 완료된 후에 기본계획안 작성, 세부 계획안 작성, 디자인 분석, 판넬 제출, 결과 모형 제시 등의 다양한 일들은 분업화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고, 결과물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우리 팀에게 이번 공모전은 단순히 상을 받았다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준비하며 사회에서 발생하는 협업에 대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듯하다.

공모전 과정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협업의 가치를 깨달은 좋은
게기가 되었어요. 건축의 중심에
사람사이의 소통이 있길 바라요.





66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꿈,
빛나는 메달들을
목에 걸다

김현준

전국체육대회 은메달

이를 수 있다는 간절함, 도전의 시작이 되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육상선수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이 좋았고, 학교에서 가는 여행의 설렘보다 시합장에서의 두근거림이 더 좋은 시절이었다. 적성에 맞는 꿈을 일찍 찾았다고 생각한 나는 항상 운동에 몰두했고 집중했다. 하지만 그러한 나의 열정은 중학교 3학년 겨울, 불행으로 다가왔다. 동계훈련을 하던 도중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쳐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나에게 다가온 부상을 어린 나이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운동을 그만두고 현실에 적응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물론 남들보다 뒤쳐진 공부를 따라잡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3년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교사가 되기 위해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유년시절 이루지 못한 운동선수로서의 꿈이 작게나마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꿈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육상교수법 수업을 들을 때였다. 매번 수업을 할 때면 열정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어느 순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운동부도 아닌 일반학생이었으며, 인천대에는 육상부도 없었다. 또한 10년이 넘도록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량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도전하게 된 이유는 나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다면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오는 후회가 엄청 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나를 설득시켰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혼자만의 외롭고, 누구보다 간절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나 자신에게 후회 없도록, 1년여의 노력의 시간들

2015년 2학기부터 도전에 대한 결심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수업이 없는 날을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수업으로 인해 훈련을 하지 못하는 날은 야간이나 주말훈련으로 대체했다. 전문적인 도움과 지원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사정을 알아본인 교수님께서 인하대학교 육상부 감독님을 소개시켜주셨다. 인하대학교 육상부 훈련일정에 맞춰 훈련 장소에 나온다면 지도를 해준다는 것이었다.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도움이었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줄기 밝은 빛을 본 느낌이었다. 이 빛을 살리기 위해 1년간의 휴학을 결심했다. 휴학기간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을 경험해보고 난 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는 너무나도 컸다. 부모님께서서는 하루빨리 정규 커리큘럼을 마치고 교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현실적으로 무모한 도전이었기에 부모님의 반대가 충분히 이해됐지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나의 의지는 확고했다.

휴학하는 것에 동의를 얻었지만 부모님과 두 가지 약속을 전제로 했다. 첫째, 1년 동안 선수생활을 체계적으로 하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하는 것. 둘째, 휴학기간 동안에도 임용공부를 절대적으로 병행할 것. 운동과 학업,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지만 휴학을 허락해준다는 말에 두 가지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정말 후회 없이 훈련했다. 일정이 맞지 않아 혼자서 훈련하는 날이 많았지만 하계훈련과 동계훈련 때에는 지도자 선생님과 함께 새벽, 오전, 오후로 훈련에 매진했다. 정말 힘든 순간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훗날 웃고 있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다시 훈련에 집중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용고시에 대한 준비도 소

홀히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루 3시간의 공부량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학교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조용한 공부장소를 이용해 보았지만, 훈련 후 밀려오는 피곤함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는 카페를 선정하였고 그 곳에서 적응하며 지식을 쌓아갔다. 남들이 보기에는 운동과 학업부분에서 많이 부족해보일지라도 스스로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며 성장해나갔다.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후회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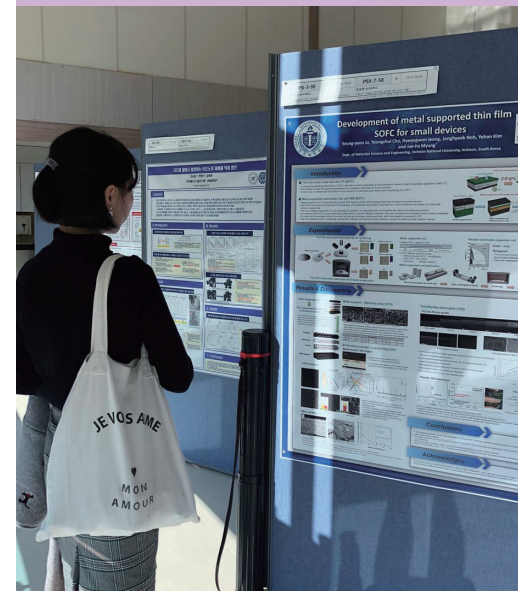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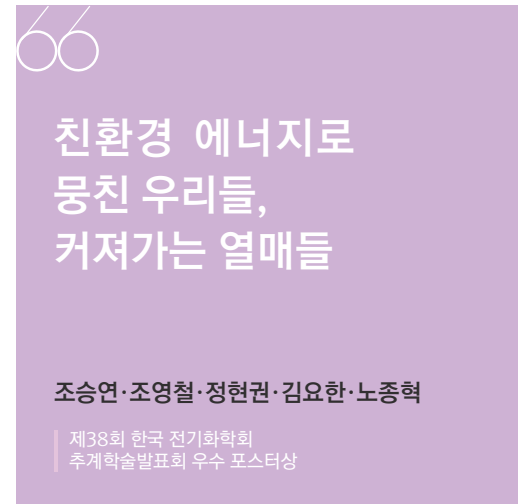




스스로를 신뢰했던 힘, 빛나는 결과로!

2017년, 복학과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 정식 선수등록을 마치고 드디어 선수들과 경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게 참가한 첫 시험인 ‘제46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멀리뛰기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가장 큰 규모의 대회인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열정만 가지고 있던 내가 꿈꾸었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들이었다. 학교 성적도 오히려 상승했다. 2017년 1학기 4.44, 2학기 4.38의 성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보다 올랐으며, 이로 인해 KUSF(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주최하는 ‘공부하는 운동선수’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을 계기로 작지만 간절했던 또 하나의 꿈에 대한 도전이 의미 없는 도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기분이 들었다. 이후로도 학업과 운동을 계속해서 병행해나갔다. 학교생활, 임용준비, 훈련, 동아리 활동 등 뻘뻘한 일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껏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버텨내고 이겨냈다. 그리하여 2018년에는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위’,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 1위’,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 1위’, ‘전국체육대회 2위’로 마무리했으며 학업부분에서는 2018년 두 학기 모두 4.5 만

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학생으로서 처음 운동선수의 꿈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지금 도전하기엔 너무 늦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건넨 말이었다. 내가 무심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의 꿈을 좇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과연 행복했을까? 어려운 도전 속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삶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남의 소리가 아닌 나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과 운동부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이 없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 개인의 열정과 간절함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나의 꿈은 최종적으로 체육교사가 되는 것이다.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체육수업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훗날 운동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다. 현재로서 그 답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훈련만 강요하는 지도자가 아닌, 공부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어진 본분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것이다.



지구를 살리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우수 포스터상의 영광까지

신소재공학과 조승연(4학년), 조영철(4학년), 정현권(3학년), 김요한(3학년), 노종혁(3학년) 에너지소재연구실(지도교수 명재하)팀은 여수에서 개최한 ‘한국전기화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 참가하여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대책으로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인천대 에너지소재연구실팀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주제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에너지소재연구실팀이 제출한 포스터는 ‘Development of metal supported thin film SOFC for small devices’로, 친환경 에너지원인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향상된 성능과 디자인 개발을 목표로 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 부산물이 순수한 물이라는 특성과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최대효율 30%)에 비해 최대80% 이상의 고효율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이 시스템은 고온에서 작동하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깨지기 쉬운 세라믹에서 금속 지지체로 부속을 교체하여 개선시켰다. 이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작동온도를 낮출 수 있으며, 유연성을 가지게 하여 소형기기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번 도전으로 신소재공학과 학생으로서 새로운 물질 개발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 소재 개발을 통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했다.

서로 다독이며 성장하는 인천대 에너지소재연구실 팀원들

연구실 팀원들끼리 밤을 새며 포스터를 만들면서 지치기도 했지만, 서로 힘이 되어주며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길러졌다. 낯설고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서로가 머리를 맞대며 고민해주었기에 값진 결과를 맛보게 된 것 같다. 생각지도 못했던 첫 수상으로 그동안 팀원들과 노력했던 땀과 열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다음 발표도 기대가 된다.

지금까지도 우리 연구실 팀원들은 서로 의지하며 자신의 분야는 물론 서로의 연구 분야도 함께 고민해주며 연구실 내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많은 학술발표회에서도 가족같은 우리 팀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준비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첫 수상을 통해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우리들의 연구,
지켜봐주세요!



순간포착 연구 성과로 장관상을 거머쥐다

임지혜, 김은서, 석희연, 신유진, 정수림, 이수아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2학년) 학우로 구성된 인천대학교 SBS팀(지도교수 최병조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은 교내 '2018 INU 창의적 캡스톤 디자인경진대회' 대상을 시작으로, '2018 공학교육혁신선도대학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동상을 통해 본선에 진출하였다. 또한 '2018 공학페스티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잡아라 순간 포착'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8 공학페스티벌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는 4차 산업을 리드할 전국 94개 공과대학생들이 전기·자율차, 스마트 친환경 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자, 에너지 신산업, 첨단소비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의 주제로 10월 한 달간 7개 선도센터별 예선전을 거쳤다. 이를 통과한 32개 팀은 서로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경쟁하게 되었다. '잡아라 순간 포착'은 라즈베리파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초고속카메라를 구현한 작품이었다. 고가인 단일이미지 초고속 카메라에 비해 다중 이미지센서를 이용하여 초저가로 초고속 카메라를 제

작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가격을 비롯한 이미지의 센서의 확장에 따른 FPS변화가 유연하여 초고속카메라의 대중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는 평을 들었다.

감사했던 교수님의 지지와 응원, 글로벌 리더 되어 베풀고파

우리 팀은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임베디드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전공 수업을 통해 배운 다양한 지식을 직접 작품에 적용시키면서 한층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있었다. 이에 전공지식을 가르쳐주신 임베디드시스템 공학과와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특히 지도교수님이신 최병조 교수님의 조언과 지지는 연구 결과에 큰 도움이 되었다. 최병조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받지 못했을 상들이었다. 함께 고민도 해주시며 자신감을 높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SBS팀원들은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전공 지식을 쌓고 이번 대회를 준비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다.



RISE 수업을 통해 포트폴리오 준비에 눈 뜨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졌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의 꿈으로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많은 학우들이 도전하는 것은 바로 '공모전' 참가였다. 그런 분위기와 함께 나 또한 공모전을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공모전을 나가기 전 '과연 내가 공모전을 나가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과 걱정도 컸지만, 어떤 방법으로 공모전을 준비할지가 더 큰 문제였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수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조언이 있었다. “대학교 졸업 후 원하는 직업이 작가라면,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서 졸업 후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힘이 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바라는 일이 작가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던 시기라 포트폴리오 제작의 필요성이 피부로 와 닿지 못했다. 학교 수업에서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

인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은 배우지 못해서 이제야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려고 하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RISE 수업'을 제안해주셨고, 수업의 내용이 포트폴리오 제작과 관련하여 고민 중인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업은 주 1회로,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인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채워졌고 그 이후부터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며 각자 만든 포트폴리오를 교수님과 학우들 앞에서 설명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며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였다.

첫 공모전 참여에서 너무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겸손한 자세로 꿈과 더 가까워질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요.

첫 공모전을 설렘과 고민 속에 준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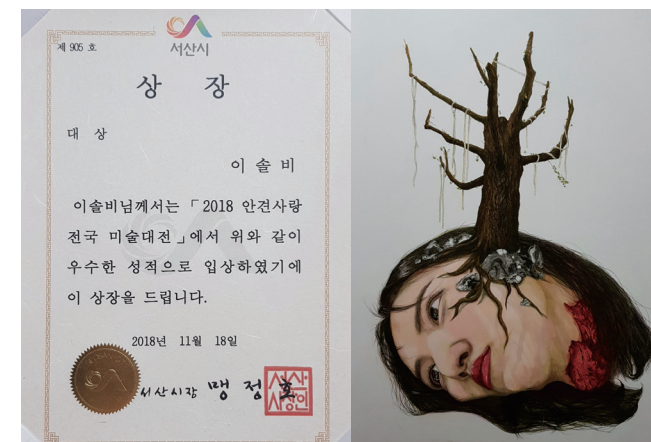
'RISE 수업'을 들으며 첫 공모전인 '안전사랑 미술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공모전을 준비하기 전에 공모전에 제출하는 작품 사이즈를 살펴보니 30-60호 사이즈였다. 너무 큰 사이즈의 작품 제출은 아니어서 첫 공모전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품을 공모전에 보내기 전에 1차 서류 면접이 있었는데, 생각한 것 보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서류 접수 기간을 확인한 후에 같이 참가하는 학우들과 학교 우체국에 가서 빠른 등기로 서류를 보냈다. 서류를 보내고 난 뒤 너무 떨어져서 1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절부절 못했던 것 같다.

몇 주 뒤에 1차 서류에 합격했다는 결과를 받고 안도하였지만, 1차 준비 때보다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먹으며 서둘러 2차 준비를 시작하였다. 2차 때에는 작품을 주최 측으로 보내야 했는데,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것이라 그 곳으로 작품을 보내야 했다. 작품을 보내기 전 생각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액자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였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 할 것이냐' 였다. 첫 번째 문제인 '액자'는 처음에는 그냥 액자 없이 보낼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냥 보내는 것보단 액자를 하는 것이 더 완성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액자를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교수님께서 평소애 이용하시는 액자 집을 추천 해주셨지만 거리가 집과 학교에서 모두 멀어서 학교 근처인 구월동에 위치한 액자집에서 액자를 맞추게 되었다. 두 번째 문제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들었다. 여러 가지 제출 방법이 있었다. 서산시 문화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이라 무모해 보였고, 평일에 학교 수업을 빼서 가기도 힘들 것 같았다. 택배로 보내는 방법은 간편하기는 했지만 배송 중 작품이 훼손 될 가능성이 있어 불안했다. 제출 방법으로 고민하던 그 때, 액자집 사장님께서 용달 거래처에 부탁하여 용달 거래처에서 작품을 운송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아 주셨다. 사장님 덕분에 나의 작품은 빠르고 안전하게 문화회관에 도착하였고,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대상 수상 이후의 다짐과 노력

'RISE 수업'은 공모전 준비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제작 방법도 차근차근히 익힐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다.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서 나의 작업 스타일의 변화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 수업 덕분에 이후에 있을 다른 공모전이나 전시도 좀 더 수월하게 준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좀 더 완벽한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잘 익혀야겠다고 결심했다. 또한 작성한 포트폴리오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작품 제작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첫 공모전 참여에 비해 대상 수상이라는 너무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꿈과 더 가까워지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다.



66

따뜻함을 있는 ‘온(溫) 커넥터’, 지속가능한 삶도 이어지다

문정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따뜻함을 있다, 온(溫) 커넥터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물 이외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닌 물을 담수로 만드는 노면이나 사용하는 물의 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생과 물적효율 측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면 위생적인 보충 기구인 온(溫) 커넥터를 개발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 아이디어는 대안이 된다. 그 시간 동안 대안하는 물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해보기 위해 새로운 물을 투입의 물속으로 넣어 대안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대안하는 물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해보기 위해 새로운 물을 투입의 물속으로 넣어 대안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대안하는 물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해보기 위해 새로운 물을 투입의 물속으로 넣어 대안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What?

온(溫) 커넥터는 물을 저장하고 온도를 높여주는 온도가 된 후 온도를 높여주는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약 1.825L, 온도를 높여줄 수 있다.

Effect

따뜻한 물을 하루 1회 먹는 데만 연다고 가정했을 때 따뜻한 물이 나오기 전에 버려지는 물의 양은 약 1.825L, 온도를 높여줄 수 있다.

Advantage

물 뿐만 아니라 수도를 처리과정에서 온도가 사용량과 인건비를 줄여준다. 또한 따뜻한 물을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양을 줄여준다. 또한 따뜻한 물을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양을 줄여준다. 또한 따뜻한 물을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양을 줄여준다.

Structure

온(溫) 커넥터는 물을 저장하고 온도를 높여주는 온도가 된 후 온도를 높여주는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약 1.825L, 온도를 높여줄 수 있다.

How to use

온(溫) 커넥터는 물을 저장하고 온도를 높여주는 온도가 된 후 온도를 높여주는 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약 1.825L, 온도를 높여줄 수 있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깨끗한 물도
온기가 더해진 요긴한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물, 오롯이 채울 수는 없을까?

디자인학부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전공 수업 중에 ‘지속가능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수업을 들은 학우들과 함께 토론을 나누었다.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DGs)에는 빈곤퇴치, 성평등 등을 포함하여 17개 분야가 있다. 이 중 어떤 것이 가장 우리의 생활과 맞닿아 있으며 영향력이 클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많은 의견이 오갔지만 물과 관련된 목표(물과 위생 제공)가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의견은 없었다.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수공급이 잘 되고 있으며 수도물을 틀면 원하는 만큼 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는 어려웠다. 물을 절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요소가 될 수 있을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가졌다.

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첫째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0.07%만이 담수여서 사용할 수 있는 해양 자원이 적다. 또한 지구상의 자원들은 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물 뿐이다. 이 당연한 사실들이 물이 중요한 자원이라고 느끼게 했다. 물이라는 자원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고,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은 다 써버리면 그냥 없는 자원이 될 뿐이다.

‘온 커넥터’로 이어진 지속가능한 물의 미래

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후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해보았다. 핵심 주제를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물 뿐이다’로 설정했기 때문에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데이터를 수집하던 중 물로 물을 대체하는 시스템인 ‘중수’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중수’는 한 번 사용한 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낭비되는 물을 파악하고 그 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로 했다. 이후 이러한 고민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다. “우리 집은 물을 아껴 쓰는 편이라서 물이 따뜻해지기 전에 나오는 물을 큰 대야에 모아서 빨래할 때나 청소할 때

써.”라는 말을 들었다. 덕분에 물이 따뜻해지기 전에 물의 온도를 체크하기 위해 틀어놓는 ‘깨끗하게 버려지는 물’에 주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물이 일정 온도에 다다르기 전에는 물을 저장하고, 일정 온도가 되면 샤워기로 배출하는 ‘온(溫) 커넥터’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아이디어는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벌써 실천하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실천하고 있는 생활 속의 지혜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면 더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과대학 · 대학원	학과 · 부(전공)	성명	공적 내용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이재희	삼성전자 DS부문 육목SW 알고리즘 대회 대상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조설화	제 7회 전국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우수상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노영보	제 7회 전국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우수상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하준용	The 6th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of Fashion Institute & Young Designers Competition(Best Creative Design상)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박세인	2018 제12회 상주 전통명주 국제패션페스티벌 일러스트 부문 입선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김다은	2018 제12회 상주 전통명주 국제패션페스티벌 특선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김효정	2018 제12회 상주 전통명주 국제패션페스티벌 특선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김하영	제1회 인천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입선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정의정	제1회 인천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입선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박은비	제1회 인천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입선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한지연	제1회 인천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입선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송유민	제1회 인천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입선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이현명	제1회 인천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입선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정윤겸	제1회 인천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입선
자연과학대학	패션산업학과	주하영	제1회 인천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입선
글로벌법정경대학	무역학부	이경원	제1회 인천대학교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입선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남상은	SCI 논문 발표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남상은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cogenomics 미래인재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김지애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대상 및 보건복지부장관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손정엽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대상 및 보건복지부장관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임종환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대상 및 보건복지부장관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김미래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대상 및 보건복지부장관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주재희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대상 및 보건복지부장관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윤나라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대상 및 보건복지부장관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함다빈	제10회 한국장학재단 수기·UCC 공모전 수기부문 장려상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장현정	제8회 남북대학생 통촌 PT 경진대회 장려상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문정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엄예지	제1회 신세계TV쇼핑 비디오커머스 콘텐츠 공모전 금상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이다솔	제1회 신세계TV쇼핑 비디오커머스 콘텐츠 공모전 금상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김예준	전국 29초 영화제 대상(제 3회 커피,일반부) 대상 / 전국 29초 영화제(제 1회 주류) 우수상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백승훈	전국 29초 영화제 대상(제 3회 커피,일반부) 대상 / 전국 29초 영화제(제 1회 주류) 우수상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조영욱	전국 29초 영화제 대상(제 3회 커피,일반부) 대상 / 전국 29초 영화제(제 1회 주류) 우수상
글로벌법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권순옥	제24회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 대상 / 2018 모의아프리카연합총회 우수상
글로벌법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최종석	제24회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 대상 / 2018 모의아프리카연합총회 우수상
글로벌법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이호준	언론 보도기사(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며 미국 자전거 횡단)
글로벌법정경대학	경제학과	성대준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 동상
글로벌법정경대학	경제학과	임성택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 동상
글로벌법정경대학	경제학과	이유정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 동상
글로벌법정경대학	경제학과	권혁승	2018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 결선 동상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정수환	대한인간공학회(ESK) 주관 제 4회 우수포스터 경진대회 최우수 포스터상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김민영	대한인간공학회(ESK) 주관 제 4회 우수포스터 경진대회 최우수 포스터상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문혜진	대한인간공학회(ESK) 주관 제 4회 우수포스터 경진대회 최우수 포스터상
공과대학	에너지화학공학과	유찬희	제 7회 전국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우수상
공과대학	에너지화학공학과	이준영	제 7회 전국화학공학 공정설계 경진대회 우수상
공과대학	에너지화학공학과	권은혜	Macromolecular research 논문발표

단과대학 · 대학원	학과 · 부(전공)	성명	공적 내용
공과대학	에너지화학공학과	권은혜	Materials Research Society Fall Meeting 논문발표
공과대학	에너지화학공학과	권은혜	한국고분자학회 , 한국화학공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발표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이윤석	SCI-E 논문 게재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한설아	SCI-E 논문 게재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주종환	한국경제신문 주최"대학(원)생 산업안전 퀴즈배틀" 입상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한승연	1회 전국 대형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주종환	1회 전국 대형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공과대학	안전공학과	박종윤	1회 전국 대형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대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신종우	NANOPIA 2018 캡스톤디자인 콘테스트 우수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김대연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우수포스터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조승연	한국전기화학회 우수포스터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조영철	한국전기화학회 우수포스터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정현권	한국전기화학회 우수포스터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노종혁	한국전기화학회 우수포스터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김요한	한국전기화학회 우수포스터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김민정	강원일보, 양구테니스대회,전국 동아리테니스대회 여자 단체전 입상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김혜연	강원일보, 양구테니스대회,전국 동아리테니스대회 여자 단체전 입상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한승재	제 1회 농협 중앙회 주관 전국 도시 농촌 상생방안 공모전 농협중앙회장 최우수상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종진	제 1회 농협 중앙회 주관 전국 도시 농촌 상생방안 공모전 농협중앙회장 최우수상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인수	제 1회 농협 중앙회 주관 전국 도시 농촌 상생방안 공모전 농협중앙회장 최우수상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김원형	제 1회 농협 중앙회 주관 전국 도시 농촌 상생방안 공모전 농협중앙회장 최우수상
공과대학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이종태	제 1회 농협 중앙회 주관 전국 도시 농촌 상생방안 공모전 농협중앙회장 최우수상
공과대학	전자공학과(아)	송수민	2018년도 한국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김현철	2018년도 한국정보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박희평	SCI 논문게재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김상우	SCI 논문게재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김도형	인천청조경제혁신센터 혁신아이디어 메이커톤 장려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김완수	인천청조경제혁신센터 혁신아이디어 메이커톤 장려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송관동	인천청조경제혁신센터 혁신아이디어 메이커톤 장려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위성욱	인천청조경제혁신센터 혁신아이디어 메이커톤 장려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김은서	201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석희연	201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신유진	201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이수아	201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임지혜	201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정수림	201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유석훈	2018년 한국응용화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발표상
정보기술대학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이승현	제3회 ICT 스마트 섬유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아이디어상
경영대학	경영학부	이수영	제53회 공인회계사 최종합격
경영대학	경영학부	김도영	2018 현대자동차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 최우수상 / 2018 한국SCM학회지 논문 게재
경영대학	경영학부	고승욱	2018 현대자동차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 최우수상 / 2018 한국SCM학회지 논문 게재
경영대학	경영학부	김영찬	2018 현대자동차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 최우수상 / 2018 한국SCM학회지 논문 게재
경영대학	경영학부	이요한	2018 현대자동차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 최우수상 / 2018 한국SCM학회지 논문 게재
경영대학	경영학부	김영준	2018 한국생산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우수상 / 2018 한국SCM학회지 논문 게재
경영대학	세무회계학과	이시현	제55회 세무사 최종 합격
경영대학	세무회계학과	정지혜	제55회 세무사 최종 합격

단과대학 · 대학원	학과 · 부(전공)	성명	공적 내용
경영대학	세무회계학과	최강혁	제55회 세무사 최종 합격
경영대학	세무회계학과	이영지	제55회 세무사 최종 합격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학부한국화전공	이솔비	2018 안전사랑 전국미술대전 대상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학부한국화전공	권보람	2018 안전사랑 전국미술대전 장려상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학부한국화전공	강한솔	2018 안전사랑 전국미술대전 장려상
예술체육대학	디자인학부	한규형	국제공모전 IF DESIGN TALENT AWARD 2018 Winner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김경수	제8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사격대회 남대부 공기소총 단체1위, 개인1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김경수	제48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남대부 50m 3자세 단체1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오정훈	제1회대구광역시장배전국사격대회 남대부 50m 권총 단체3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유승석	제8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사격대회 남대부 공기소총 단체1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이건국	제8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사격대회 남대부 공기소총 단체1위, 개인3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이건국	제48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남대부 50m 3자세 단체1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장원준	제1회대구광역시장배전국사격대회 남대부 50m 권총 단체3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송윤	제1회대구광역시장배전국사격대회 남대부 50m 권총 단체3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송민호	제8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사격대회 남대부 공기소총 단체1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송민호	제48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남대부 50m 3자세 단체1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박준혁	제1회대구광역시장배전국사격대회 남대부 50m 권총 단체3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신화수	제48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남대부 50m 3자세 단체1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신화수	제34회 회장기전국사격대회 남대부 50m 3자세 단체2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정가영	제52회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2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윤희경	제52회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2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김예림	제52회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2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장민희	제52회전국남여양궁종별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개인전 2위, 30m 2위, 50m 1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서채원	제64회전국남녀총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개인단식 3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서채원	제24회회장배전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1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오혜린	제64회전국남녀총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개인단식 3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오혜린	제24회회장배전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1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이예빈	제64회전국남녀총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개인단식 3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이예빈	제24회회장배전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1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장혜진	제64회전국남녀총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3위, 개인단식 3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장혜진	제24회회장배전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1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김세화	제64회전국남녀총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개인단식 3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김세화	제24회회장배전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여자대학부 단체전 1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김혜영	2018년도 전국대학대항테니스대회 단체전 2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윤소희	2018년도 전국대학대항테니스대회 단체전 2위, 복식 2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이지은	2018년도 전국대학대항테니스대회 단체전 2위, 복식 2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공효진	2018년도 제34회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 복식 1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박상봉	2018년도 제34회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 복식 1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노하림	2018년도 제34회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 단식 3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송수연	2018년도 전국대학대항테니스대회 단체전 2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이승희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혼합복식 우승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김주은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단식 3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우아현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혼합복식 준우승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백승희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최성화	2019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이다희	2018 FISU 세계대학 배드민턴 챔피언십 동메달

단과대학 · 대학원	학과 · 부(전공)	성명	공적 내용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이다희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단식 우승, 복식 3위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조영서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복식 3위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김강국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김경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김종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김호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양경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이준수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전성무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정은성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주종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이상벽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이종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표건희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김동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류정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박형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박형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안찬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임동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조상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이광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이석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전진호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서휘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안해성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백성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김민형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이형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김형민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부	권기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축구)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고기태	제14회 백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 남대부 K-1 200m 3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김현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은메달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김현준	kusf awards 학생선수 부문 우수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	조하은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부문 입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	허세림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부문 입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	장민혁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부문 입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	정윤재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부문 입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	한원호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부문 입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	백지원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부문 동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	최유정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부문 동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	김서경	제2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계획부문 동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	박찬수	2018 학생작품전 우수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학전공	정예림	제15회 인천건축학생공모전 대회 입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도시설계전공	한상천	제15회 인천건축학생공모전 대회 입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도시설계전공	김현재	제15회 인천건축학생공모전 대회 입선

단과대학 · 대학원	학과 · 부(전공)	성명	공적 내용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도시설계전공	곽수빈	제15회 인천건축학생공모전 대회 입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도시설계전공	최영우	2018 구미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특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도시설계전공	권유정	2018 구미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특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도시설계전공	기효영	2018 구미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특선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진영주	018 전국대학생 학술발표대회 장려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조경운	2018 전국대학생 학술발표대회 장려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최태민	2018 제 4회 대학생 설계VE 경진대회 격려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박현수	2018 제 4회 대학생 설계VE 경진대회 격려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최영웅	201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장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손혜민	201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장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이재승	201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장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김혜주	201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장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김진규	201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장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구본산	201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장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윤정환	201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장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김환	201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장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김예림	201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장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오경의	2018년도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혁신부문 구조분야 한국콘크리트 학회장상
도시과학대학	건축공학전공	문동규	2018년 한국 생활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도시과학대학	건축공학전공	안창현	2018년 한국 생활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동북아통상전공	오성택	2018 5급 공채(행정(국제통상)) 합격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한국통상전공	티모시 킵코리 카탐	2018 서울오픈국제달리기대회 3위
대학원	해양학과	엄혜진	SCI급 논문게재
대학원	해양학과	엄혜진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대학원	해양학과	이도희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우수논문발표상
대학원	해양학과	이도희	SCI 논문 발표
대학원	해양학과	이호준	SCI 논문 게재
대학원	해양학과	김소연	2018 춘계 해양학회 화학부문 우수 포스터상
대학원	해양학과	윤주은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최우수상(해양수산부 장관상)
대학원	해양학과	윤주은	SCIE 논문 게재
대학원	해양학과	윤주은	연구논문발표
대학원	물리학과	김현태	AIP ADVANCES 논문 공저자
대학원	물리학과	김현태	JKPS, ASCT 논문발표
대학원	물리학과	김현태	국내특허
대학원	물리학과	김현태	국제학회 포스터 우수상
대학원	물리학과	전준우	Materials Today, AIP Advances 저널 논문 게재
대학원	물리학과	한규호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논문게재
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최문경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 Computer Interaction 저널 논문 게재
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	이동훈	한국전자거래학회 추계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대학원	건축학과	이예지	제 14회 대한건축학회 전국 우수졸업논문전 우수상
대학원	건축학과	이예지	2018년 한국생활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대학원	건축학과	문지훈	2018년 한국 생활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대학원	건축학과	박성표	2018 정기학술발표대회 우수 논문상
대학원	건축학과	최재욱	2018 정기학술발표대회 우수 논문상
대학원	건축학과	윤보형	2018 정기학술발표대회 우수 논문상

단과대학 · 대학원	학과 · 부(전공)	성명	공적 내용
대학원	생명 · 나노바이오공학과	최대건	SCI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 · 나노바이오공학과	최대건	2017 Outstanding Paper Award 수상
대학원	생명 · 나노바이오공학과	강해리	2018년 Scientific Reports 논문 게재
대학원	안전공학과	이영재	SCI-E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과학과	허정연	SCI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과학과	성민형	SCI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과학과	이지희	SCI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과학과	백승아	SCI 및 SCIE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과학과	백승아	국내외 포스터 발표 (주저자 및 공동저자)
대학원	생명과학과	김예진	SCI-E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과학과	김예진	국의 포스터 발표
대학원	생명과학과	김태진	SCI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과학과	김태진	한국대사체학회 우수 발표상 수상
대학원	생명과학과	박영진	SCI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과학과	박영진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우수논문발표상 수상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김현구	Advanced Materials Interfaces 저널 논문 발표 및 커버지 선정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NGUYENCHI THANG	The 4th International Confeneence Presentation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정광필	SCI-E 논문 게재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김성훈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Science and Engineering 학회 최우수 발표상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권성준	International Symposium on Zeolites and Microporous Crystals 2018 학회 발표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김지원	SCI 논문 게재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정성훈	SCI 논문 게재 및 출판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박준화	SCI 논문 게재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박준화	18' 춘계 고분자 학회 포스터 발표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박준화	18' 춘계 공업화학회 포스터 발표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장영진	SCI, SCI-E급 논문 게재 승인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장영진	특허 출원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장영진	2018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체결
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장영진	Material Research Society 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 화학공학회 발표
대학원	전자공학과	박대길	2018 한국항행학회 종합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대학원	전자공학과	고석현	2018 한국항행학회 종합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강수진	SCI급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차연주	SCI급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조의상	Int. J. Syst. Evol. Microbiol. 및 J. Microbiol. SCI급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이현진	Biotechnol. Bioprocess Eng. SCI급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이현진	2018년도 한국미생물학회연합 국제학술대회 우수 구두발표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김미방	2018년도 한국미생물학회연합 국제학술대회 우수 구두발표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김성준	SCI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김성준	한국생체재료학회 우수논문발표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박의선	2018 한국생물공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학생우수논문발표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조희정	2018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연구책임자 선정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조혜란	SCI-E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조혜란	한국생체재료학회 우수논문발표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 공학과	강전일	Journal of Indust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SCI-E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강전일	2018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 2018 인천대를 빛낸, 인천대 학생

단과대학·대학원	학과·부(전공)	성명	공적 내용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 공학과	박수진	Biomaterials SCI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박수진	2018 한국고분자학회 추계 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 공학과	이소희	2018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이소희	2018 한국생체재료학회 추계 학술대회 우수 논문발표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 공학과	이동신	2018 한국생체재료학회 춘계 학술대회 우수 논문 발표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 공학과	안정아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Healthcare Materials 우수 논문 발표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 공학과	이지수	SCI-E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 공학과	이지수	2018년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과정 연구책임자 선정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 공학과	이지수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수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 공학과	류영채	SCI-E 및 국제저널 논문게재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	박성진	SCI-E급 논문 게재
대학원	생명 나노바이오공학과	이우기	2018 춘계한국생물공학회 우수논문발표상
대학원	생명나노바이오공학과	정순길	국내특허 출원, PCT 국제출원